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43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성령강림절기**입니다. 성령충만 받아 증인된 사명 감당하며 날마다 승리하십시오!
5. 성경통독: 제 7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58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10/25(수) 8시 Zoom 기도회(사도행전 강해)
7. 감사: 오늘 맛있는 점심은 조은미 사모님께서 준비하여 대접하십니다.
8. 강단미화: 오늘 강단 장식은 박지영 성도의 생일을 감사하여 드렸습니다.
9.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 2,857.00)

십 일 조: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43호 2023년 10월 22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갈 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갈 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갈 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박동희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계시록 2:8-11 다 갈 이
- 설 교 Sermon “생명의 연류관을 받은 교회” 조병우 목사
- 봉헌송 Hymn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다 갈 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갈 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 요 기 도 회

밤 8:00 (ZOOM)

새 벽 기 도 회

화~토 새벽 6:00

이 번 주 섬 김 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박동희 권사	조병우 목사	조은미 사모	조민연 박종님
다음주	조은미 사모	박종님 전도사	유금자 권사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살전5:18)라고 썼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내린 결정에 대해서까지 감사할 필요는 없지만, 주님은 그 힘든 상황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이러한 견해에 대한 예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도망친 종 오네시모와 함께 옥에 갇혔습니다. 결코 그는 당시 처해있던 나쁜 상황에 대해 감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서신에는 감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네시모는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사랑스러운 형제였습니다(16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모든 일에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지만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The apostle Paul wrote, "In everything give thanks" (1Thess. 5:18). That doesn't mean we have to be thankful for everything. We need not be thankful for the bad choices someone makes, but we can be thankful in the circumstances because the Lord can use the resulting difficulties for good. The letter to Philemon illustrates this idea. Paul was imprisoned with Onesimus, a runaway slave. He certainly didn't have to give thanks for his bad situation. Yet his letter is full of gratitude because he knew that God was using it for good.

Onesimus had become something more than a slave; he was now a beloved brother in the Lord (v.16). Knowing that God can use all things for good is more than enough reason to give thanks in everything. Giving thanks in difficult circumstances is a small detail that makes a big difference.